

지역 소식통

김제청년창업 지원사업 '아리(All-Re)' 신청 연장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2020 김제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아리(All-Re)' 신청 접수를 오는 2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아리' 사업은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5억 6,000만원을 투입,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12명을 모집하여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등에 필요한 창업 초기비용을 1인당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2021년도 공모에 계속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성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김제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6차산업, 지식창업, 일반창업(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임상 문화, 전통 자산 등을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화할 수 있으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신규 창업자나 3년 이내 초기 창업자가 해당되고 관외 거주자의 경우는 사업 선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하면 신청 가능하며,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본격 시동

김제시는 14일 농업기술센터 방역상황실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 위촉식 및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위원회'는 허전 부시장과 송춘호 전북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시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김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0억을 투입해 로컬 액션 그룹 양성, 김제 푸드 리서치 랩을 통한 성장시스템 구축, 가공시설 구축 및 커뮤니티 복합공간조성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사업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추진위원회'는 세부계획 승인 및 사업비 투자 결정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포스트 코로나' 대규모 투자

완주군, 코로나 극복 이후 상황 대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1000억원 투입 예정 당초 예산보다 2.6배 증액... 긴급 경기부양 등 총 24개 사업에 집중적 지원

코로나19의 선제적 방벽으로 '코로나 제로(zero)'를 유지해온 완주군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완주군은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고 지난 3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왔다. 소상공인과 기업지원, 일자리, 취약계층, 농업축산, 지역관광 등 7개 분야 9개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은 그동안 긴급 경기부양, 농축산물 유통, 비대면 문화관광 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선정해 매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들 사업의 당초 올해 세출예산은 386억8,200만원이었으나 최근 추경을 통해 612억100만 원을 증액, 총 998억 8,900만 원이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완주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당초 예산보다 2.6배 늘린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셈이다.

분야별 지원액을 보면 사회복지가 663억2,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일자리·소상공인 분야에 135억 8,100만

원, 교육아동 141억 6,700만원 순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257억7,500만 원과 완주군이 별도로 지급한 '완주형 1~2차 긴급재난지원금' 133억3,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완주군은 지난 4월 전 주민 대상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6월에 2차 재난지원금 93억 원(주민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기로 군 의회와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 188억4천900만 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74억 원 등이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긴급 지급되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33억 원, 특수고용종사자와 프리랜서 특별지원금으로 4억4,300만 원, 비정규직과 실직자, 청년사업장 일자리 지원에 3억4,9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택시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12억45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선정되면서 어려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식품 산업과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300억을 투입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최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계 위기 대응 매뉴얼 제작'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 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업계 홍보마케팅비 1억7,700만 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축산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농업인력지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2,500여 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1일에는 식품기업 휴먼에노스에 지역농가 상추 220톤을 공급하는 협약을 가져 농업과 기업의 동반 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다.

완주군은 또 지난 4월초에는 프리랜서 감사비 선지급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333 프로젝트 추진, 공유재산과 농기계 임대료·지방세 감면, 건설공사 조기 착수, 지역상권 확대 운동 등 추가 예산 없이 가능한 사업 추진에 전 부서와 읍면이 동참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농업과의 상생발전 도모와 먹거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청사 내 로컬푸드 무인판매대를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완주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설치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농촌진흥청에 무인판매대 추가 운영

완주군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완주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상생발전점을 꾀하고 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농업과의 상생발전 도모와 먹거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청사 내 로컬푸드 무인판매대를 추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완주군은 기존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이어 올해 추가로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에 로컬푸드 무인판매대를 추가 운영한다.

국민연금공단 지하층 구내식당 입구와 농촌진흥청 1층 휴게실 내 2곳에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설치를 완료했으며,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 2019년 행정안전

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청사 내에 로컬푸드 무인판매대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로컬푸드 무인판매대에서는 완주 로컬푸드인증 받은 안전하고 신선한 제철 농산물 등이 진열 판매대 직원들 및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또한, 판매되지 못한 농산물은 완주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한 나눔 냉장고에 기부하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상생발전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전한 농산물의 대량사인 완주 로컬푸드가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밥상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공모 선정 '쾌거'

올해부터 5년간 지원... 10개분야 국도비 등에 총 84억 사업비 투입 예정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총사업비 84억원)'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은 기 선정된 9개 지자체를 제외한 233개 지자체 중에서 푸드플랜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상, 3차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김제시는 2019년 2월, 유통식품과를 먹거리유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푸

드플랜과 로컬푸드팀 신설하여 정 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 김제시 푸드플랜 중장기 종합전략을 마련했고 푸드플랜 전문가로 구성된 먹거리통합지원팀을 올해 2월 추가 조직하여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 등 김제시 푸드플랜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의 산물인 김제시 푸드플랜을 위해 허전 부시장을 단장으로 행정협 의체인 푸드플랜 실무추진단을 구성 했고, 행정간막이를 넘어 한마음, 한 뜻으로 협치하여 푸드플랜 패키지 공

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푸드플랜 패키지사업이란 지자체에서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패키지 형식으로 5년간(20~24)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위해 김제시는 먹거리 관련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 교관계자, 학부모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번 사업에 로컬푸드직매장(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등 10개 사업에 국도비 등 총사업비 84억원이 선정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투자유치과,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김제시 투자유치과(과장 최보선)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지난 13일 일손이 부족한 농가 일손돕기에 나섰다. 최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코

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입국지원 및 제한조치 등으로 외국인 인력마저 확보가 어려워 농촌 인력확보 및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농가들의 시름

을 덜고자 농촌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농촌 일손돕기 행사에 참여한 14명의 직원들은 고추 지주대 세우기 작업을 하면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성덕면, 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접수

김제시 성덕면(면장 강기수)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성덕면 전담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이다.

성덕면은 지난 4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대상자)인 389가구에 181,000천원을 지급 완료했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원 수를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5월 11일부터 세대주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신청

을 받고 있으며, 5월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연계 은행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읍면이 충전된 선불카드 또는 지역경제상품권을 지급 받게 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공적 마스크 구매 방법과 같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번인 사람이 방문하면 된다.

강기수 성덕면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성덕면 TF팀을 구성해 성덕면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푸르밀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NK 프로젝트 N·1**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연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